

화승 중심

HWASEUNG Life
Magazine

2023 SUMMER
Vol 71





가속도가 붙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한가운데를 지킨다.
굳건한 **중심**에 팽이가 돈다.

A pair of metal scales of justice is shown on a wooden surface. The scales are made of polished metal, likely brass or copper, and are suspended by chains. The right pan is lower than the left pan, indicating it is heavier. The background is a warm, textured wooden surface.

편중되지 않은 질량
불평하지 않은 상태
각 세우지 않고 모나지 않아야,
저울은 **중심**을 이룬다.



바람 불면 바람 타고
파도치면 파도 탄다.
그 흐름에 맡겨
잘 타는 것이 **중심**이다.

COVER STORY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 AMG의 브레이크 호스를 개발하고 승인 완료한 화승인들입니다. 까다로운 고성능 스펙 만족을 위해 5년여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들의 노고에 갈채를 보냅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통합기술센터 설계담당 김국현 상무 / 화승R&A FL개발팀 강동현 팀장 / 통합기술센터 FL설계팀 김병주 선임 /
통합기술센터 FL설계팀 전범진 팀장 / 통합기술센터 AUTO재료팀 이도완 팀장 / 통합기술센터 AUTO재료팀 백흥우 책임 /
화승R&A FL생산팀 도윤희 책임 / 화승R&A FL생산팀 최입동 팀장

CONTENTS

2023 SUMMER Vol.71

총괄 화승 그룹홍보팀 김병호 팀장

화승 그룹홍보팀 심일욱 선임

화승R&A 김무진(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박건국(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이성수(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한동민(경영지원팀 매니저)

화승네트웍스 김기훈(전략기획팀 선임)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부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책임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선임

2023년 6월 20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 그룹홍보팀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인쇄 우일인쇄

퍼낸 곳 화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 비서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SETTING

10 70보100보

비전과 전략의 오브제, 신발에 담긴 화승의 중심^{中心}

12 70th 중심로드맵

셀레브레이션 프로젝트
화승 70주년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

16 중심인터뷰

에너지 전환으로 이뤄낸
녹색 메커니즘
그래, GREF!

22 중심지덕^{中心之德}

백자대호,
《한 점 하늘_김환기》전에 초대되다



ACTING

28 화승원 四季

화승원 사진전_봄꽃만개(滿開)

34 화승인사이트

화승, 벤츠향 고성능
브레이크 호스 개발, 승인 완료하다

44 70th 포커스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화승가수왕×부산MBC 열전노래방

50 화승+화승인

화승을 인연으로, 아버지를 추억하다

54 히든-화승템

신발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면
옷도 과학이 된다



EXCITING

58 방과후 화승

세차동호회 세.진.사
까리한.카라이프

64 문화피처링

당당함과 겸손함, 도전과 열정의
선*을 보다
김수현 미스부산 선

68 문화프리즘

아는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발레

72 제法이다

알기 쉬운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및 제도(1)

76 HS NEWS



SETTING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을 뜻하지만 확실한
자기 주관이나 생각도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을
잘 견지해나가는 것을
‘중심 있다’고 표현합니다.
화승 70년,
꺾이지 않고 중심을
견지해온 결과입니다.



비전과 전략의 오브제,

신발에 담긴

‘사물의 한가운데, 행동의 기본이 되는 부분, 확고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사전에서는 ‘중심(中心)’이라고 풀이한다. 좋은 뜻이지만 무거운 의미가 아닐 수 없다. 하나의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고,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뜻을 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승의 신발 사업도 맨발에서 출발해 요동치는 시대, 변화무쌍한 시장환경을 딛고 흔들림 없이 지켜왔기에 기업명에 가치를 더하고 ‘글로벌 화승’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비전과 전략을 위한 분투적 오브제, 신발은 화승의 시작이자 성장 동력이었다. 그리고 70년을 한결같이 끈추세운 화승의 중심이었다.

다시 신발 끈을 매야 할 시간이다. 세계시장에서 자동차부품, 화학, 소재, 종합무역, 그리고 신발ODM 분야에서 ‘화승’이라는 기업이 스스로의 가치를 드높이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몸풀기는 끝났고 중심은 잡혔으니 이제 질주하는 일만 남았다. 70년을 딛고서 이제 화승 100년을 향하여!

화승의 중심^{中心}

1

- 화승 70주년
옥외광고 진행



- 니드하우스
탄소중립 중목구조 세미나

2

- 사내 전시
부산대 조형예술과
석박사 전시회
(with 안순주 교수)
(2월 14일~24일)



7



8

- CI 변경 (8월 7일)
- 사내 전시 예정



3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꿈틀프로젝트
(3월~8월/11월 전시)

- MBC 열전노래방 부산편
(3월 23일/사내 진행)



4

- 한국일보
미스코리아
부산대회(4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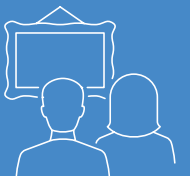
9

- 국립발레단
화승 임직원 및 관계자
초청공연 진행
(9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화승 임직원 자녀 발레
클래스



10

- 부산일보
2023 제32회 부일영화상
- 사내 전시
발달장애 청년 작가 4인전
(황성제/윤진석/심승보/김수환)



5

- 한국경제
특집 기사(5월 24일 게재)



6



11

- 문화주간
- MBC 열전노래방 양산편
(11월 4일 예정)
- 사내 미술 클래스
그루잠 프로덕션
임직원 가족 미술 클래스

12

- 70주년 기념 행사
12월 15일 부산롯데호텔
- 12월 9일 미술 스냅 공연
(부산 영화의 전당)



70주년 기념사업 TF는 매달 한 번씩 소통하며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TF의 논의는 국내외 전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전파되어 더 좋은 생각들로 시너지를 내고 70주년의 의미를 짝 채운다. 1년의 반을 지나는 순간이다. 남은 반년을 더욱 빛낼 우리 화승, 중심의 과정들을 돌아보자.

화승 70주년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

Vietnam



TF 회의를 하며 가장 놀라운 건 해외 법인들의 진심 어린 SNS 이벤트 진행이다. 화승 공식 인스타그램도 소통의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화승엔터프라이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법인들의 SNS 소통은 놀라울 만큼, 소통 보폭이 크다.



Indonesia

페이스북으로 70주년 엠블럼 인증샷 공모, 5초간 피트니스 영상을 찍어 올리는 공모 등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베트남,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70주년을 주제로 시(詩)를 짓는 시낭송 대회, 나무심기 이벤트, 체육회를 열어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중국 법인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화승코퍼레이션 중국 법인은 자체 7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공감의 폭을 넓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누구의 70주년이 아닌 우리 화승의 70주년, 그리고 그 중심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있다. 그것을 증명하듯 2023년 70주년의 반을 함께 걷고 있다. 남은 시간에 더욱 중심을 잡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뜻깊은 70주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70**



China



에너지 전환으로 이뤄낸 녹색 메커니즘

그래,
GRES!

“철강회사에서 스마트팜을? 원 소리아?”
했는데 직접 가보니 “와~”하고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컨테이너 한두 동이나
수직농장 들어놓고 거창한 스마트팜
타이틀을 걸어둔 건 아닌지 했던
예상을 심하게 빗겨 갔다. 아주 제대로 된,
아니 그 이상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
메커니즘은 물론, 그다음의 푸드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GREF(Green
Recycling Energy Foundry)를 만났다.
싱그러운 스마트팜, 녹색의 온실 속으로
함께 걸어보자.





대한제강의 성장 에너지 솔루션,

GREF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포장된 ESG의 겹질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찌이 아닌 찹 같은 친환경 속에 찼환경 그 자체인 녹색 메커니즘이 있다. 원탑 철강기업 대한제강의 녹색 개척지, GREF다. 타이틀에 대한제강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도 GREF는 GREF지, 대한제강의 사이드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겼던 탄소중립, 지속 가능,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야기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을 GREF는 해냈다. 대한제강의 녹색 사업 브랜드인 GREF는 그래서 더 특별하게 주목받고 있다.

생산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인 철강, 철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온의 열에너지와 그 부산물인 온실가스는 그동안 대부분 공기 중에 버려졌지만 이를 산업에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에서 GREF는 시작되었다. 공장의 폐열과 에너지를 100% 활용해 온실에 필요한 성장 에너지로 바꾸는 솔루션, 그것이 GREF가 열어가는 녹색 메커니즘의 코어 밸류다.





폐열을 열정으로 재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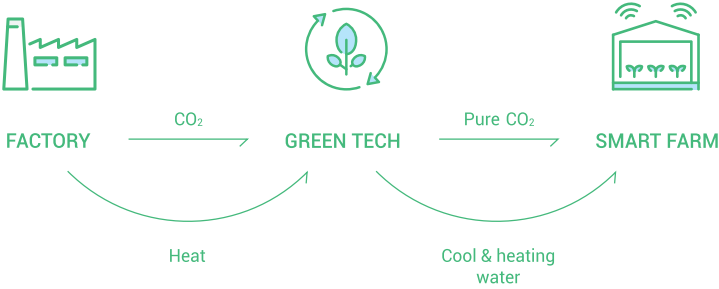
임직원들의 노력

이 사업에 대한 시작점은 바로 오치훈 사장이다. 지속 가능한 철강 사업의 길을 모색하던 차에 열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스마트팜 사업을 떠올린 그는 농사 잘 짓는 직원을 고민하다 CFO인 박민식 이사를 떠올렸다. 처음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열의를 불태웠던 박 이사였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그가 이 사업을 맡게 되었고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그는 팀원들과 함께 해냈다.

부산 신평 공장에 약 1,400평 규모의 최첨단 유리온실 4개 동과 연구개발센터까지, 스마트한 온실이 스마트팜이 되었다. 딸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망고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각각 온실에서 매일 자라며 열매를 맺어준다. 현재 시설 테스트 기간으로 수확물은 부산시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또한 사내 판매로 직원들 가족의 테이블에도 올려진다. 가족으로까지 확산된 녹색 메커니즘이다. 판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가격이면 매일 완판되는 거 아닌지. 이 직원들은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 싶다. 직원들의 반응 또한 좋은 GREF다.

불과 얼마 전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첨단 온실과 연구개발센터까지 시스템을 모두 갖추는 과정에서 박민식 이사와 함께한 MZ력 가득한 팀원들의 노고가 새삼 빛나는 순간이었다. 경북대, 부산대, 동아대 등에서 농업과 원예를 전공한 친구들로 사이 좋게 온실 속에 함께 있는 그들을 보니 GREF의 싱그런 초록빛 미래가 그려졌다.

GREEN의 녹색 메커니즘



녹색 메커니즘을 갖춘

푸드테크 기업으로

이곳은 단순한 온실 스마트팜만 있는 곳이 아니다. 앞으로 이 폐열과 탄소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더욱 다각적인 에너지 연구를 이어감과 동시에 첨단 AI를 통한 농업의 신세계를 열어갈 계획이다. 현재 규모에서 확대해 수직농장 증설 등의 구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한제강의 또 하나의 신사업은 바로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 워크웨어 사업이다. 방염 작업복, 압연 근무복, 오피스 근무복에 안전화까지. 철강 사업을 하며 작업자들의 불편을 유심히 살피은 이 회사는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아예 안전을 위한 제품까지 만들게 되었다. 박민식 이사와 함께한 팀원들의 웃을 보니 바로 떠오른 '아! 아커드 (ARKERD)'다.

이 연구개발센터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첨단 농업의 미래를 여는 그들은 한발 더 나아가 푸드테크 기업으로의 꿈도 꾀다. 수확한 딸기로 청을 만들고 담금주도 만드는 연구를 통해 제품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꿈꿔 본다. 처음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이뤄낸 것처럼 머지않아 그들의 새로운 꿈은 또한 현실로 이어질 것이다.

‘철강 회사가 왜 스마트팜을?’이라는 의문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다. 철강 회사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GREF. 그래서 GREF에는 대한제강이라는 꼬리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잡아 새로운 수확을 얻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GREF, 대한제강 ESG 그 중심에 우뚝 선 GREF다. 70

Green Foundry For Next, GREF(gref.co.kr)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대한제강 신평공장내)
051-260-2333 / gref@daehan.com
워크웨어 브랜드, ARKERD(arkerd.co.kr)

달을 바라보며, 달항아리를 그리고

백자대호, 《한 점 하늘_김환기》전에 초대되다



한국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대규모 회고전

호암미술관이 드디어 다시 문을 열었다. 삼성문화재단(이사장 김항식)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이 1년 반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첫 전시회를 연 것. 재개관의 무게감 만큼 심혈을 기울였을 재개관 첫 전시가 바로 《한 점 하늘_김환기 a dot a sky_kim whanki》전이다. 한국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1913-1974)의 40년 예술세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김환기는 20세기 한국미술사에 추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선구자이다. 또한 김환기는 전쟁 직후의 열악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서 우리 미술의 발전과 국제적 성장을 꿈꾼 20세기 한국미술의 리더이기도 하다. 이번 회고전의 제목인 《한 점 하늘_김환기》에서 ‘한 점 하늘’은 이러한 김환기의 40년 예술세계의 특징을 담고 있다. 달을 바라보며 달항아리를 그리고, 별을 바라보며 고국과 친구를 그리워하던 그에게 하늘은 예술의 큰 원천인 동시에 자연과 삶, 세상을 함축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1, 2층 전시실 전관에서 약 120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시대별 대표작은 물론, 도판으로만 확인되던 여러 초기작들과 미공개작, 작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스케치북과 드로잉들을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유족의 협조로 김환기의 유품과 편지, 청년시절의 사진, 낡은 스크랩북 등이 처음으로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이 자료들은 작가의 회고전을 더욱 의미있고 풍성하게 해주며, 이후 작가 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항아리, 1956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여인들과 향아리, 1960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한국적 예술을 향한 집념의 시작, 한 점 달향아리

이번 전시 관람의 시작은 2층에서 시작한다. 높다란 계단을 올라가 노라면 거장 김환기의 예술세계를 대면하러 가는 설레임과 기대감에 한껏 고양된다. 이번 전시 1부의 주제는 <달/향아리>이다. 1부는 김환기의 예술이념과 추상형식이 성립된 193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작업을 소개한다. 달과 달향아리, 산, 구름, 새 등의 모티프가 그림의 주요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 가운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전시물이 있다.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론도>, 작가의 유일한 벽화 대작 <여인들과 향아리> 등 작가의 대표 초기작을 관람하는 동선 중간에 크고 둥글고 환한 조선 백자가 한 점 문득 놓여있다.

바로 화승 창업주 현수명 회장의 문화재 사랑을 이어받은 현승훈 회장이 소장한 달향아리다. 김환기 화백이 생전에 서울 성북동 집에서 보유하고 있던 향아리이다. 현 회장은 달향아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 인연이 있기에 이번 전시에 현 회장은 선뜻 애장품을 내놓았다.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굵은 획을 그은 거장과 거목의 인연이 둥근 달을 닮은 달향아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미술작품 최고가는 김환기 화백의 <우주>이다. 이 화제의 작품 역시 이번 전시장 1층 2부 <거대한 작은 점>에 전시되어 있다. 커다란 캔버스를 가득 메운 작은 점 하나하나를 보노라면 작가의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듯하다. 창백한 푸른 별 지구, 그 위 작은 점 같은 '나'와 '너'. 그대들이여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소리없이 위로하는 듯하다. 시끌시끌 하수상한 시절, '거대한 작은 점'이 모여 우리가 되고, 우주가 되는 신비함과 만나보길 권한다. 돌아서는 길, 둥글둥글 달향아리 같은 마음도 느껴보시길. **TO**

《한 점 하늘.김환기 a dot a sky_kim whanki》

전시기간 2023.05.18(목)~9.10(일)
전시장소 호암미술관
관람시간 10시~18시(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예약 사전 온라인 예약 필수(www.hoammuseum.org)
관람요금 14,000원

백자대호(김환기 구장 舊藏)

조선, 17세기말~18세기초
화승 현승훈 회장 소장

이조 향아리

지평선 위에 향아리가
둥그렇게 앉아있다.
굽이 좁다 못해 둥실 떠 있다.

둥근 하늘과 둥근 향아리와
푸른 하늘과 흰 향아리와
틀림없는 한쌍이다.

뚝
닭이 알을 낳듯이
사람의 손에서 쏙 빠진 향아리다.

「그림에 부치는 시」중에서.
『신천지』1949년 2월호

《한 점 하늘.김환기》전경 (2부. 거대한 작은 점)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ACTING

26 — 27

화승이 또 해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만큼, 쉽지 않았던
진입장벽을 뚫고 벤츠 전용
브레이크 호스를 개발,
승인 완료했습니다.
5년여의 노력으로 화승은
글로벌 경쟁사 중 벤츠의
신규 스펙을 최초로 만족시킨
개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능수백나무

봄 꽃

滿 開



능수백도화 (화현동산)



배롱나무

지난 5월, 2023년 화승원의 봄과 꽃을 담은 사진전시회가 부산 장천빌딩 사옥 2층 미디어홀에서 열렸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현승훈 회장의 생일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 행사로 지난 40년간 정성을 다해 가꿔온 정원, 화승원(和承苑)의 꽃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들을 모아 전시했다.

능수벚나무, 능수백도화, 고려영산자, 홍단풍, 삼색 명자나무 꽃 등 평소 보기 힘든 꽃나무 사진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는 화승 임직원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도 화승원 봄꽃의 화려함을 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었다.



홍단풍

백매화



삼색 명자나무 꽃

고려영산자



영산홍



등나무 꽃



수선화



능수백도화 (화승원)

현승훈 회장이 40년을 넘게 가꿔온 정원, 화승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정원으로 이름나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 웅장한 나무들이 즐비한 화승원에는 특히 재개발 등으로 사라질 뻔한 고목을 가져와 정성을 다해 키워내는 등 인화와 생명을 중시하는 현승훈 회장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원이다. 이 밖에 선영인 경남 진례의 화현동산, 자택의 정원 등에 핀 주옥같은 봄꽃들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전시였다. **70**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화승에 연이은 낭보가 쏟아지고 있다. HMG 신형 그랜저 프레임리스 도어 개발에 이어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벤츠의 전용 브레이크 호스를 개발하고 승인 완료한 것. 신재료·신공정으로 최적의 개발로 평가받고 있는 벤츠 전용 고성능 브레이크 호스 개발의 역군, 화승 통합기술센터 FL 부문 TF팀과 함께해본다.



화승, 벤츠^향 고성능 브레이크 호스 개발, 승인 완료하다



화승 기술력이 만든 벤츠 전용 고기능성 브레이크 호스

김국현 상무
통합기술센터 설계담당

‘벤츠 전용 브레이크 호스 개발, 승인 완료’라는 쾌거를 이뤘다. 벤츠 AMG 브레이크 호스 개발 배경 및 진행 과정을 들려준다면?

그동안 폭스바겐과 BMW에는 납품하고 있었지만, 벤츠에는 강력한 경쟁자인 플레시텍과 콘티텍이라는 글로벌 서플라이어가 버티고 있어, 우리의 기술과 품질을 선보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벤츠에서 브레이크 호스에 대한 스펙(기술 요구사항)을 강하게 상향 조정하였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그 스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화승의 기술진들이 각 부문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서 벤츠 스펙을 만족시키는 호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오더 수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쉽지 않았지만, 개발과 승인을 받고 나니 보람을 느낀다.

벤츠는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 업체다. 상향된 까다로운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라면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상향 조정된 스펙을 만족하기 위해 호스 설계 및 재료개발에 고심을 많이 했다. 설명하자면, 이 스펙의 핵심은 브레이크 오일이 고온이 되었을 때도 호스의 팽창량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 계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만, 나중에는 페달을 밟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 걸 느낀다. 그 이유로 현재 브레이크 호스는 고온에서는 팽창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페달을 밟아도 호스가 이 압력을 전달 해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팽창량을 억제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기술은 호스 내부 보강재의 재질 및 형상 설계에 있다.

벤츠 브레이크 호스 개발, 승인으로 독일 3사(벤츠·BMW·아우디)에 인증받은 화승이 되었다. 고객사인 벤츠의 반응,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가?

독일 3사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고객사다. 납품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아무리 가격이 싸도 함부로 서플라이어로 선정하지 않는다.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고 고객사에 화승이 메인 서플라이어로 자리 잡았다. 이미 폭스바겐에서는 화승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BMW도 화승에 더 많은 물량을 주기 위해 협상 중이다. 벤츠에서도 상향 조정된 스펙을 빠르게 만족시킨 화승의 기술력에 놀라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화승의 생산 현장 및 설계기술을 보고 상당히 만족해했다. 시장에서 경쟁하던 호스 메이커들, 특히 우리의 기술 선생 격인 니찌린에서도 이번 벤츠 승인 관련해서 대단하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FL 부문 직원들과 함께한 소감, 그리고 향후 기대하는 매출 목표 및 그에 따른 달성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기술개발을 축약하자면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제품을 제작하고 나서 이것을 시험, 평가하는 시간이 되면 긴장의 연속에 기도하는 마음까지 생긴다. 모든 순간을 함께해왔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조마조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벤츠 물량의 50%를 화승 제품으로 채우는 것이다. 영업환경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라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테마가 ‘화승 중심(中心)’이다. 화승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자로서 해야 할 몫이란 무엇이며 화승 70년에 대한 나만의 소회를 전한다면?

역할이라면 화승인 개개인이 화승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승인 한 명의 노력이 모여서 화승이라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팀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화승 7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외부의 엄청난 변화와 풍파를 이겨낸 상징이다. 그만큼 화승은 강하고 멋진 기업이다. 그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롭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어갈 멋진 화승이 되리라 확신한다.

고기능성 스펙 만족을 위한 화승 기술력의 쾌거 벤츠 브레이크 호스 개발·승인 완료

화승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인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브레이크 호스(B/H) 개발 및 제품 승인을 완료했다. 벤츠 AMG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관제 개발 및 승인을 위해 5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이다. 신규 브레이크 호스는 벤츠 AMG의 스펙 변경에 맞춰-강화된 물성 요건 충족을 위해-많은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특별히 개발, 제조되었다.

브레이크 호스는 차량 주행 시 브레이크 응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 신규 브레이크 호스는 고압고온에서도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층을 2겹으로 적용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특히 고온에서의 팽창성을 낮추면서도 상온의 팽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한 보강층을 개발, 적용하였다. 이로써 70도 고온에서의 호스 수축·팽창량이 기존 대비, 최대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고 중·장거리 주행에서도 브레이크 응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소재 측면에서도 물성이 우수한 소재를 개발하였다. 브레이크 호스의 기본이 되는 고무 소재로는 일반사양의 세미퍼옥사이드가 아닌 ‘퍼옥사이드(Peroxide)’를 적용, 고온 내구성 및 형상 유지력을 강화했다. 최적의 소재 개발로 기존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써 화승은 글로벌 경쟁사 중 벤츠의 신규 스펙을 만족시키는 호스를 최초로 선보인 개발의 주역이 되었다.

고성능 브레이크 호스 스펙

구분	구형 관제	신규 개발(신형)
보강층	보강 1층	비닐론
	보강 2층 (재질 변경)	비닐론(최적화)
		PET사(팽창성 개선)
고무 재료	세미폭사이드 일반사양	폭사이드 (고온 내구성 강화)
가류 방식	스팀 가류	전열 가류



고성능 사양에 적합한 브레이크 호스의 설계 및 개발에 중점

전범진 팀장
통합기술센터 FL설계팀



브레이크 호스 선행개발 및 양산사양 개선, 자동차 신규 및 양산 차종에 대한 설계검토와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전범진 책임, 2003년 3월 신입으로 들어와 올해로 입사 20년 차다. 재직 기간 중 15년 가까이 선행개발의 PM 담당 업무를 맡았으며 브레이크 호스 외에도 다수의 아이টে을 개발해왔다. 최근 가장 뿌듯한 성과라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 전용 브레이크 호스를 개발하고 최종 승인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면 고객사의 주요 재료 및 성능 요구사항 분석, 브레이크 호스의 구조설계(내외면 고무 선정, 편조층 사양 설계 등), 브레이크 호스 금구설계 등 고성능 사양에 적합한 호스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이었다. 호스 및 금구의 연결구조(체결)에 대한 검증, 다수의 고객사 성능 요구사항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성능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수많은 샘플을 만들었죠. 새로운 컨셉으로 샘플을 만들고 평가에 들어가면 길게는 1주일 이상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병주 선임과 퇴근 전 근심 반, 기대 반의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출근하면 아무 말 없이 시험설비에 찾아가 샘플에 방문 인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TF 팀원들이 신규 브레이크 호스의 개발뿐 아니라 각자의 업무를 병행해야 했기에 팀플레이가 절대적이었다며 김병주 선임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전범진 팀장. 현재 양산 중인 브레이크 호스의 통합 사양을 개발 진행하고 있고, 내구성·생산성·수익성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브레이크 호스’하면 ‘화승’이라고, 당당히 글로벌 OEM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힌다. 그의 바람과 포부대로 화승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 세계 TOP 랭킹에 오르길 희망해보자.

“FL개발팀은 Fluid System의 모든 호스 및 수지 TUBE 등의 개발을 진행합니다. 고객사 일정에 맞춰 샘플 대응, 문제점 개선, 최적의 양산라인 구축, 손익 개선 업무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입사한 강동현 책임의 업무다. 그동안 현대기아·쌍용 등의 고객사들과 고저압 호스의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8년부터는 A/C 호스 개발 업무를 진행해오다 개발팀장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벤츠 AMG 신규 관체 개발에 맞춰 실차 장착용 시제품 개발 및 일정에 집중하고, 성능뿐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완성차 조립성, 호스와 조립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동시에 개발 진행했지만, 담당자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개발담당 고객과의 관계였다는 강동현 팀장. 벤츠와의 첫 개발 프로젝트로서 최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 미팅을 진행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소통에 집중해야 했다.

개발에서 승인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기쁘다는 그에게 앞으로의 바람을 물었다. “벤츠 AMG 브레이크 호스 관체가 승인된 만큼, 안정적인 라인 구축 및 양산 이관이 될 수 있도록 ERHQ 법인과 잘 협업하는 것이고요. 전기차 시장의 PLASTIC RAD 및 DEGASING TUBE의 초도 양산이 MV 및 SX2e 차종을 시작으로 양산 투입이 되는 만큼, 타사 대비 가격경쟁력으로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이익을 창출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화승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서 있는 강동현 팀장, ‘중심’하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를까.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경영진의 비전과 전략을 잘 받아들이고 팀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위아래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아이들이 장성해 ‘아버지가 참 좋은 회사에 다니셨구나. 나도 꼭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과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화승이 70년 아닌 700년 이상 장구하기를 소망한다.



벤츠와의 첫 개발 프로젝트, 고객 만족을 위한 소통에 집중

강동현 팀장
화승R&A FL개발팀



양산성 확보 사양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팀원들과의 정보공유 강화

최업동 팀장
화승R&A FL생산팀



2000년 11월 화승R&A FL생산기술팀으로 입사한 최업동 팀장, 화승T&C를 거쳐 2014년 화승R&A로 복귀했다. FL 생산기술과 생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재 생산팀을 책임지고 있다. 고객사의 오더에 맞춰 브레이크 호스 및 저압 호스의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준해 재료 및 설비를 투입해 현장 작업자들이 정해진 방법으로 압출 관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일이 그의 주요 업무다.

이번 벤츠 고기능성 브레이크 호스 개발을 위해 집중했던 업무로는 설계 요구 사양에 맞는 샘플 제작 및 제작 시 작업조건이나 공정품질의 특이사항 모니터링이었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양산성이 확보되는 사양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테스트 사양 결정 단계부터 관련 팀원들과 정보공유를 강화한 것이라고.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준다.

“신규 호스 개발에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성능 관체 설계 사양과 양산성 확보를 위한 공정조건 셋업에 유리한 사양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프로젝트 역시, 초기 테스트 사양 선정 시에 도윤희 책임과 김춘곤 기능대리, 이영일 기능대리 등 양산성을 중시한 생산팀 담당자들 입장과 성능개선을 중시한 설계팀 담당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서로 간의 제안을 수용하고 문제점은 해소했죠.”

최고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팀원들의 업무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고, 바람직한 과정이었다고 술회한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규 수지 압출 제품의 안정적인 초도 양산과 기존 제품의 생산 전반에도 LOSS를 절감함으로써 손익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최업동 팀장. ‘중심’하면 떠오르는 그의 생각을 물었다. “모든 것이 모아지고 또한 갈라지는 이미지이자 정보기술 등이 한곳에 모아지고 서로에게 공유되는 것. 화승이 그런 역할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치열한 외부경쟁 속에서도 70주년을 맞이한 화승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더 큰 화승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 또한 잊지 않는다.

“벤츠 전용 브레이크 호스 프로젝트에서 소재를 담당한 AUTO재료팀입니다. 고무 재료 부분을 담당하는 2개(자동차 부문과 비자동차 부문) 팀 중 자동차 부문을 맡고 있죠. 웨더스트립(SL), 호스(FL) 등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고무 재료들을 개발, 개선하는 업무와 법인(해외 포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입사해 만 19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이도완 팀장이다. 생산팀으로 입사해서 기술팀, 인도법인 주재원을 거쳐 복귀 후 품질팀, 다시 생산팀, 작년부터 AUTO재료팀에서 일하고 있다며 화승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업무 스펙을 소개한다.

글로벌 고객사 제품인 만큼, 쉽지 않았을 소재팀의 고충은 무엇이었을까. “벤츠 전용 브레이크 호스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차종의 브레이크 호스 재료는 운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품이다 보니 타 제품들 소재보다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 고객사이다 보니 요구사항보다 높은 물성의 안전율을 확보하는 재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추가로 현장 양산성까지 확보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개발을 진행했다고 한다.

“견다가 중심을 잃으면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화승이 70년을 성장해온 것도 대단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중심을 잡아야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화승인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중심’의 의미다. 화승도 화승만의 중심을 다잡기 위해 통합기술센터를 발족하고 기술을 체계화해 미래 먹거리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자신 또한 변화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 기술 개발에 집중해 화승의 미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디어 뿔뿔, 업무 효율 뽕뽕한 신명 나는 일터, 70년을 넘는 100년, 200년 장수 기업’, 그가 그리고 바라는 화승의 현재와 미래다.



높은 물성의 안전율 확보 및 양산성 확보를 고려한 재료개발 진행

이도완 팀장
통합기술센터 AUTO재료팀



벤츠 AMG B/H 개발, 승인은 독일 완성차 진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심재문 법인장
화승 독일법인(HSEU)

화승코퍼레이션 독일법인 소속인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독일법인(HSEU)은 현대자동차 유럽공장 포함 유럽 완성차 업체와 영업 및 엔지니어링 코디네이팅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회사들과 화승코퍼레이션의 자동차 사업뿐 아니라 소재, 산업용품의 제휴업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화승 입사에서 법인장까지, 그동안 화승에서의 업무 경력을 소개한다면?

2008년 1월 화승알라바마(HSAA)에 현지 채용으로 입사했으며 3년 동안 Shipping Office를 맡아 JIT 출하 및 완제품 창고를 관리했었다. 그러다 개인적 사유로 귀국해야 했는데, 마침 본사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제의받아 화승R&A로 발령받고 2011년 3월부터 양산 해외영업팀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지금의 독일법인에는 2013년부터 주재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7년 HSTR로 발령, 2018년도에 다시 이곳으로 오게 돼 지금은 HSEU에서 법인장직까지 맡게 되었다.

최근 벤츠 전용 브레이크 호스 개발 및 승인이 완료되었다. 독일 브랜드 차량이라 느낌이 남다를 거 같은데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 소회를 들려준다면?

벤츠 AMG의 브레이크 호스 승인, 수주 소식뿐 아니라 BMW 등 완성차 업체가 우리와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하여 화승의 최고경영층과 미팅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독일 완성차에 진입하기 위해 수없이 문을 두드렸던 십여 년

전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VW, BMW, Benz 구매, 엔지니어들과 미팅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던, 마치 '저 동양인들은 왜 자꾸 우리의 업무시간을 뺏고 귀찮게 하나'라는 듯한 눈빛을 잊을 수 없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과 참 많이 비교된다. 이럴 때 '감개무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 같다.

개발에서 승인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프로젝트 관련 법인 차원의 주요 업무 및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라면 무엇인지?

십수 년 전 허 대표님께서 FL본부장직을 맡고 계실 때부터 벤츠 브레이크 호스 진입을 위해 노력했었고, 수주는 없었지만 조건부 승인도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벤츠가 AMG(고성능 차량)와 같은 수준으로 성능 스펙을 올리면서 재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때문에 AMG 엔지니어와 소통이 매우 중요했고, 독일법인에서는 통합 기술센터 FL설계팀과 연계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충실히 제공했던 점, 그리고 AMG 담당 엔지니어와 법인의 직원(이현주 선임)이 현지 언어로 끊임없이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여 승인, 수주까지 성공하였다. 해당 엔지니어와는 지금 개발기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화승R&A 공장도 방문하여 한국과 화승에 다시 한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났다. 이번 결과는 모두가 제 역할에 충실한 끝에 얻었기에 더욱 값지다. 다시 한번 독일법인뿐 아니라 국내 동료 선배님들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화승 국내 팀과의 공조 및 협업 관련,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준다면?

앞서 언급한 FL설계팀과의 공조뿐 아니라, 22년 5월 HSTR 공장의 '잠재성분석평가' 감사 시 화승R&A에서 VDA 심사원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긴급히 지원해줘서 같은 해 9월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터키에서 감사 진행 시 HSTR의 공장장 등 모두가 합심하여 감사뿐 아니라 그들이 터키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잘 대응해준 것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이번 호 테마가 '중심(中心)'이다. 화승인으로서, 법인장으로서 조직에서 어떤 중심,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담당업무를 하면서 밤에 잠들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슈가 머리를 떠나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고객사와 화승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이슈가 풀릴 때까지 노력했었다. 담당업무뿐 아니라 '독일법인'이라는 조직을 맡고 있는 만큼, 독일법인에 조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 조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내 역할인 거 같다.

독일법인으로서의 역할, 혹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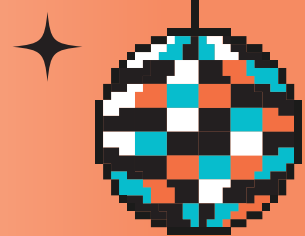
ERHQ는 KRHQ, ARHQ, CRHQ와 비교할 때 매출이나 인원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매출 성장보다는 금번에 벤츠 AMG의 브레이크 호스를 진입한 것처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이곳 유럽에서 화승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루는 성과와 공유하는 정보가 화승코퍼레이션 글로벌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화승 70주년이다. 화승인으로서 화승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한국에는 100년 기업이 두 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 우리 화승이 100년 장수 기업에 근접한 것만으로도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화승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 한마디 전하고 싶은 말이라면, 내가 화승으로부터 많은 도전의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유능한 동료 선배님들에게도 도전의 기회가 계속 제공될 수 있는, 더 큰 기업이 되도록 화승도 우리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70



왼쪽부터 Mr. Sabin-Alexandru Opris(AMG Brake System 개발엔지니어), 독일법인 심재문 법인장, 이현주 선임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화승가수왕*부산MBC 열전노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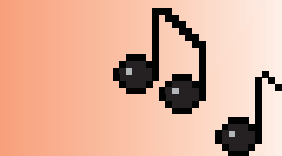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답답했었나. 집에서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퇴근까지, 마치 신체의 일부마냥 마스크를 끼고 다녔던 그 시절. 퇴근 후 소주 한 잔에 목청 높여 노래 한 곡 땡기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던 음주가무형 직장인들에게는 꽤나 괴로운 시절이었을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공식화되고 얼마 뒤, 화승 본사 장천빌딩 사옥에서는 그동안 정말 보기 힘들었던 행사가 열렸다.



그냥 행사가 아니었다. 무려 노래경연대회. 코로나19 이전 부산MBC에서는 '김동현 아나운서의 열전MBC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잠정 중단됐었다. 하지만 이번 화승의 행사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콜라보로 해보자는 스쳐 지나가는 듯한 발언들이 실제 현실이 되어 진행된 것이었다.

코로나19를 3년 가까이 겪으면서 사람이 모이는 것에 격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 MZ니 뭐니 하면서 남 앞에 나서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등 시작부터 온갖 부정이 난무했지만 막상 하면 잘하는 화승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행사는 지체 없이 진행하였다. 총 15팀의 참가자가 모집되었고, 부산MBC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사전인터뷰부터 해서 방송 프로그램답게 시작되었다. 노래가 취미인 직원, 등 떠밀려 나온 직원, 간만에 끼 좀 부리겠다는 직원 등 다양한 색의 직원들이 참가했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니 역시는 역시였다. 하나둘 채워지던 객석은 순식간에 장천빌딩 2층 미디어홀을 가득 채웠고, 그렇게 싫다 더니 응원 플래카드도 준비해왔다. 참가자들도 꽤 많은 관중 앞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오프닝은 화승코퍼레이션 이명식 상무의 열창으로 시작됐다. 한국 사람은 역시 마이크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다르다. '젠틀'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상무의 사우팅은 온 객석을 환호로 물들였다.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다.





신입사원부터 책임급 직원까지 숨겨왔던 본인들의 끼를 마음껏 뽐낸 시간이었다. 객석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 에어콘을 풀 가동했음에도 현장의 열기는 식혀지지 않았다. 발라드, 댄스, 락 등 다양한 장르로 펼쳐진 참가자들의 무대는 2시간 가량 이어졌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회사, 부서, 총별로 선별된 직원 심사위원들, 경연이 끝나자 매우 난감해했다. 농담이 아니라 다들 너무 실력이 출중해 평가가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것이 후문. 오랜 심사 집계 끝에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단 하나. 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음주가무형 직장인의 대표주자 화승 사람들의 유쾌한 잔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독 움츠러드는 요즘이지만 오랜만에 직원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람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다. 70



- 최우수상 화승네트웍스 김문욱 선임(더레이-청소)
- 우수상 화승코퍼레이션 이소윤 사원(우연아-우연히)
- 인기상 화승네트웍스 장원우 선임(임재범-너를 위해)
- 응원상 화승코퍼레이션 HR팀

흥부자, 끼부자 화승 직원들의 화려한 무대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내를 비롯해 해외 계열사에서도 많은 시청을 했다. 아래 QR을 통해 행사 풀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화승을 인연으로, 아버지를 추억하다



1991년 아버지(故 전남식 선생)와 2023년 아들(전정민 책임)을 한 프레임에 담다.

한 회사에서 장성한 아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건 아버지에게 어떤 느낌일까. 사회에 나와 아버지와 동료로 일한다는 건 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할까. 대한민국의 많은 부자지간이 그러하듯, 자신 또한 아버지와 가깝지 않은 사이였다는 화승소재 AUTO재료팀의 전정민 책임을 만났다. 다소 늦게 깨달은 선친의 마음, 그리고 화승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소환해본다.



30여 년 전 화승화학(현 화승R&A)에 근무하셨던 아버지(왼쪽에서 두 번째), 사내 산악동호회 회원이자 동료들과 산행 후 찰칵! 아버지 옆에 선, 당시 중학생이었던 까까머리 전정민 책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추억 뜬 한 컷.



화승 선후배이자 동료였던 아버지와 아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고 개성 강한 모습의 아버지, 삼촌 혹은 이모로 불렸던 아버지의 동료들이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등산 모임이 미래의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동호회였다는 걸 짐작이나 해봤을까. 지금의 화승인이 투영된 그때 사진 속에는 올해로 화승에 몸담은 지 28년 차에 접어든 전정민 책임이 있다.

1994년 화승R&A SL생산팀을 시작으로 기술연구소 웨더 스트립 재료개발팀을 거쳐 현재, 화승소재 R&D센터 탄성 재연구실 AUTO재료팀에 근무 중인 전정민 책임. 팀의 책임있는 자리에서 웨더스트립 제품 관련 재료개발 및 손익 개선, 고객사 품질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그에게 강렬한 인상의 사진 속 주인공에 대해 물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2년도 동양항공으로 입사해서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당감동 시절인데요. 특수물 부서에서 생산직장으로 일하셨어요. 2003년경 부서가 아웃소싱되면서 퇴사하신 거죠.” 그의 아버지이자 또 한 명의 화승인이었던 고(故) 전남식 선생에 대한 설명이다.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부자지간은 아들이 입사하던 1994년에서 2003년, 10년 가까이 ‘화승’이라는 한 지붕 아래 한 술밥을 먹으며 함께 일했다. 화승의 동료이자 선배였던 아버지는 7년 전 위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다. 살갑지 않은 외동아들이었고, ‘외동이라 버릇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키우기 위해 엄하셨던 아버지였다. 평소 동료들과 격의 없이 지내셨지만 근무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직장으로서 근엄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아버지는, 아들의 기억에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 한 집안의 가장,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써 이제야 선친의 마음이 헤아려진다고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대한 소회를 풀어낸다. “어릴 때 기억이, 연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셨는데 눈 잠깐 붙이시고 또 일찍 출근하시곤 하셨어요. 그때는 당연히 몰랐죠. 직장인이 돼보고, 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묵묵히 짊어져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일터에서 느껴야 하는 책임감들이요.”

회사, 그리고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

소속과 업무가 달라 일터에서 대면하기 어려웠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아버지가 당부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전정민 책임의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것은 당시 같이 근무하는 고참들 대부분이 이모, 삼촌뻘 되는 연장자들이니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과 일하다 실수하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라는 것. 현재는 그 솔직함이 지나쳐 종종 웃픈 상황이 벌어진다며 농 섞인 말을 보탠다.

아버지 살아생전 데면데면했다는 그에게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가족여행이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은 다녔지만, 가족끼리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해봤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아버지와 못해본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와 못했지만, 아들들과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다고 한다.

입사 당시 고무가 제품이 되는 것이 마냥 신기했고, 일을 통해 자신이 돈을 번다는 자체만으로도 신나고 재미있었다는 전정민 책임, 화승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고 한다. 어느덧 화승에서 중심이 되는 관리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 또한 만만치 않을 듯하다. “무겁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움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조직이나 팀에서 저보다는 늘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화승이었고 자신의 청춘과 삶을 함께한 화승이었다. 화승 안에서 지속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다. 듣지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현재 몸 상태가 부실하다는 그는,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활력 있는 화승인으로 거듭나는 게 눈앞의 목표라는 것과 지면을 통해 가족과 화승에 대한 애정어린 멘트도 잊지 않는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니와 가족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승 가족 여러분, 건강 잘들 챙기시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집이 있다.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의 후회와 아쉬움은 없었을까. 우리 삶에는 통과 의례가 있다. 찻국게도 직접 꺾어보고 몸소 체험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진정한 깨달음도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도 생긴다.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도, 말하지 못한 아들의 마음도 비로소 헤아려지는 것처럼. 전정민 책임과 그의 선친을 통해 찼하고 묵직한 화승인만의 매력이 느껴진다. **70**



“화승, 신발 만드는 회사잖아”에서 “화승, 신발에 모자, 의류도 만드는 회사잖아”로 변화하고 있다. 까다로운 신발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옷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이 잘 만들기 때문이다.

화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군인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화승비나(베트남), 화승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중국) 3개 신발 생산 공장을 필두로 독보적인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아 아디다스 신발 ODM 업체 내 점유율 2위를 수성하며 신발 산업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신발 산업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패션 산업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모자, 의류 계열로도 진출해 나이키, 언더아머, 라코스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스포츠 ODM/OEM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신발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면 옷도 과학이 되는 곳, 베트남에 위치한 화승 의류 공장 현장을 둘러보면 그 뜨거운 작업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70



신발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면

옷도 과학이 된다



EXCITING

뿌리 깊은 🌲 나무, 바람 🌪에 아니 꺾여
꽃 🌻 좋고 🍊 열매 실합니다.
인화 🤝를 바탕으로 웃음꽃 😊을
피웠으며 선진 기술 🌀을 향한
지속적인 ⌚ 연구개발 📖로
기업 성장 🏢이라는 튼실한
🍏 열매도 얻었습니다. 흔들려도 🌿
꺾이지 🦊 앉았습니다. 2023년 🐰
화승은, 중심 🏹 있는 기업입니다.

한 달에 1번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연신 때 빼고 광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귀찮아할 작업인 듯한데도, 노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얼굴 표정은
밝아지고, 연신 여기저기서 웃음바다가 펼쳐진다. 이 특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화승코퍼레이션 세차동호회 <세진사> 회원들이다. 조직생활에서도,
동호활동에서도 수고로움을 즐겁게 자처하는 에너지이저들을 만나본다.

세차동호회 세.진.사

까리한. 카라이포



(左부터) 김봉건 선임, 최영기 선임, 배상수 선임(동호회 회장), 조유진 선임, 정수일 책임, 오희진 선임, 이태규 선임

세차에 진심인 사람들

5월 10일 저녁 6시 부산의 한 셀프 세차장에 차량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화승코퍼레이션 세차동호회 <세진사> 회원들. 빈 부스에 차량을 입고시키기 전, 회원들은 변신을 한다. 깔끔한 직장인의 옷차림 위에 멋진 세진사 로고가 인쇄된 방수 앞치마를 챙겨 입고, 세차용 고무장갑까지 착용한다. 단체로 복장을 맞춰 입으니, 다른 개인 차주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못짜다, 세진사.

“자~ 여기 카루미 카삼푸와 세정제, 왁스 챙겨들 가세요.” “최녕기 총무님은 세차 시작하게 카드로 요금 결제해주세요.” “이쪽 부스로 오랜만에 참석하신 정수일 책임님 차부터 먼저 자리잡으시죠. 자~ 이제 세차 시작합니다!” 일사분란하게 세차용품과 장비를 차에서 내리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며 작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차량들이 세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회장 배상수 선임의 눈에 아닌가 보다. 매의 눈으로 회원들의 차를 한 대씩 스캔하며 컨설팅한다. “고새 휠에 이물질이 무지 쌓여 있네. 김봉건 선임, 이쪽 휠과 트렁크 쪽으로 고압수를 확 뿌려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퇴근 후 세차가 시작된다. 세차는 고압수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폼칠, 미트(걸레질), 휠 세척, 고압수 뿌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진사의 세차 풍경은 아름다웠다. 내 차 네 차 구분 없이 부스에 먼저 입고된 차량부터 삼삼오오 모여 함께 폼칠하고, 힘을 합쳐 걸레질을 한다. “조유진 선임, 작년에 뽑은 새 차죠? 오, 관리 잘하고 있네요.” “네, 회장님과 세진사 덕분이지요. 매달 세진사 모임 날짜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같은 회사지만 서로 다른 팀인지라 평소에 밀렸던 근황 이야기도 오간다. 고압수가 시원스레 살포되는 사이로 세차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걸레질하는 사이로 서로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묵은 때를 벗기는 상쾌함 일상까지 세차해요

“세차동호회를 만든 계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세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 동료들에게 세차와 관련한 도움말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세차하면 힘도 덜 들고, 재미있을 듯해서 모집에 나선 것이 시작입니다.” 그때가 바로 2022년 8월경이다. 화승 사내에서 ‘핵인싸’이자 자동차 전문가로 유명한 배상수 선임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매월 1회 모임을 가지며 함께 세차를 하는 것이 주활동이다. 모두 차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이들을 뭉치게 했다.

“제가 가입한 이유요? 제가 2021년 6월 새 차를 구매하고 취미로 손세차를 혼자 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에 <세진사>에 가입했어요. 전에는 쓸쓸하게 혼자 1~2시간씩 세차를 했는데 <세진사>에 가입한 후엔 외롭지가 않아요.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세차를 하고 종종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니 세차가 더욱 즐거워졌어요. 차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힐링까지 얻는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세진사>의 부총무를 맡고 있는 오희진 선임의 자랑이다.

<세진사>의 회원은 여성 회원 2명을 포함해서 총 14명. 나이대는 대개가 30대이고, 20대와 40대도 2명씩 있다. 모두 차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이다. 특히 세진사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분위기 메이커이자 해박한 세차 지식을 가진 배상수 회장이다. 때론 관리가 안된 차를 보면 ‘잔소리를 쏟아내지만 비싼 광택기나 물기제거기로 직접 회원들 차를 관리해주고, 선뜻 빌려준다. “세진사는 회장님으로 시작해 회장님으로 끝납니다. 회장님의 노하우는 정보 공유하기보다도 교육에 가깝습니다. 세차 장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부터 술선수범하는 시범까지 방대합니다. 세차는 과학과 예술의 조화임을 실감케 합니다.” 홍보국장을 맡고 있는 심일욱 선임의 말이다.

모임 내내 웃음바다를 이룬 <세진사>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내 차는 물론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상쾌함을 느끼고 싶은 사우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동호회에 가입해달

라”라고. 모두 차주라는 특성상 <세진사>의 유일한 단점은 술자리 회식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세진사>의 영문이름은 ‘SEJINSA HS DETAILING CLUB’이다. 단순한 ‘세차(Wash)’를 넘어 ‘디테일링(Detailing)’을 지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차를 닦는 것’을 넘어 ‘차를 가꾼다’는 포부를 가진 <세진사>. 이들이 가꾸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차만이 아닌 듯하다. 이렇게 삶도, 회사생활도 멋지게 가꾸는 그들, 까리하다, 세진사! 70

세차용품 협찬: 카루미(carlumi.co.kr)



당당함과
겸손함,

도전과 열정의

선
을
보
다

2023년 4월 18일, 미스코리아 부산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자원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서 부경대 경영학도 김수현 씨가 미스부산 선(善)의 영예를 안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아는 청춘, 70주년 화승이 지향하는 기업 마인드와도 닮아있는 그녀를 부산 연산동 화승 사옥 2층 미디어홀에서 만났다.

축하합니다. 미스코리아는 어떻게 출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하며 자연스레 저를 드러내는 일에 익숙해 있었고, 주변의 권유도 있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배들의 말을 들으니 출전만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입상 여부를 떠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도전해보겠어, 20대를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스코리아 부산대회 출전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면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남들과 다른, 저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와의 대화도 많이 했고요. 워킹이나 포즈 취할 때, 인터뷰 심사할 때 김수현만의 매력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저 스스로와 더 가까워졌고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회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졌고 간절함도 더 커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요?

미스코리아 대회는 조금은 내성적인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다 타인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대회는 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면서 제 가능성도 볼 수 있었고 자신감이 더 생기면서 성격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신데 입상 후 달라진

주변의 반응이라면?

많은 이들의 축하와 관심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웃음). 얼마 전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인터뷰도 하고 화승에서 잡지 촬영도 했어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상 속의 새로운 경험을 두루두루 하는 중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당당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대회 끝나고도 스스로 관리를 꾸준히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행동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회 준비하면서는 스스로에게 “즐거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힘들 때도 그 순간을, 그리고 모든 준비과정을 즐기자는 생각으로 임했고 그 결과 이렇게 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네요. 한마디로 멘탈 관리를 한 셈이죠.

서울 본선에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걸 좋아해서 안 배워본 운동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취미 부자’란 소리도 듣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바이올린 연주예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도 활동했고, 무대에서의 연주 경험도 많고요. 기회가 된다면 본선에서 제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미스부산 선의 후원사인 화승에 대해 평소엔

좀 알고 있었나요?

‘화승’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신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사업이 확장돼 있다는 건 이번 화승 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홍보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많은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화승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정말 멋진 기업인 것 같아 선으로 당선된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학업 후의 진로, 혹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중인 아나운서라는 꿈을 향해 달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미스코리아 부산대회 수상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해요. 도전하고 노력했던 일을 성취한 쾌감을 느끼게 해준 미스코리아 출전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해서 널리 제 이름도 알리고 싶습니다.

MZ다운 당당함과 ‘겸손하랴’는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은 자세까지, 미스부산 김수현 씨에게서 풍기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패기와 열정 가득한 그녀가 화승 70주년에 대한 축하 멘트를 건넨다. “70주년이라니,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룬 기업이라고 느껴집니다. 100년을 넘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승, 파이팅!” **70**



아는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발레

화승 7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국립발레단 초청 <돈키호테> 공연이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아는 만큼 보이는 발레이어 더욱 풍성하게 즐기 위해 지난 호에 이번에는 발레의 사조 및 공연 에티켓을 비롯해 K-발레의 현주소와 부산 공연 예정인 작품 <돈키호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발레에 대한 인식 및 역사, 유명 발레 작품들
2 K-발레의 현주소와 발레 용어 및 관람 에티켓

ballet

프랑스에서 시작된 발레 사조, 그리고 에티켓

발레의 시작은 16~17세기 프랑스 궁정발레(Court Ballet) 시기 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발레가 예술 양식으로 진지하게 발전한 시기는 19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이다. 전 유럽을 강타한 낭만주의(Romanticism) 운동의 영향으로 등장한 ‘낭만발레(Romantic Ballet)’는 대본상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마법적 요소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고전발레(Classic Ballet)’가 등장했다. 프랑스 출신 발레 마스터인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가 제정 러시아에서 구축한 양식이다. 특징으로는 명료성, 대칭, 균형, 통일, 조화 등 형식상 고전주의적인 기법이 두드러진다. 20세기 이후에는 근대화, 현대화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무용예술 양식인 현대무용(Modern Dance)이 등장했는데, 이 정신이 발레에도 흘러들여와 고전주의를 타파하는 ‘현대발레(Modern Ballet)’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전주의를 새롭게 해석한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발레’,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한 ‘드라마 발레(Drama Ballet)’, 1980년대 이후 동시대 발레를 의미하는 ‘컨템포러리 발레(Contemporary Ballet)’ 등의 개념이 등장했다.

사조에 따라 다양한 특징과 기법을 갖게 된 발레, 어떻게 즐기고 관람해야 할까. 발레는 왕실의 문화로 발전한 고급예술이기에 첫째 복식도 최대한 격식을 갖춰 입는 게 매너다. 요즘은 공연 문화가 많이 대중화되어 정장이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바지나 슬리퍼 차림은 피하는 것이 센스다. 다음으로 박수 치는 타이밍이다. 클래식 음

01



악은 전체 곡과 악장을 구분해서 박수를 치는 게 예절이지만, 발레는 공연 도중 한 곡에 맞춰 무용수가 춤을 추고 마지막 포즈를 취하는 순간마다 박수 치면 된다. 간혹 무용수가 고난도의 테크닉을 해냈을 때 박수 치거나 호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용수들의 감정과 춤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에 좋은 매너는 아니다. 공연에 감동했다면, 박수와 함께 이탈리아어로 ‘잘한다’라는 뜻의 ‘브라보(Bravo)’를 외치며 적극적인 찬사를 표하면 된다.

발레도 K-Ballet, 당당히 글로벌 무대로 비상

지난 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50회 프리 드 로잔(Prix de Lausanne)에서 최종 수상자로 한국인이 무려 3명이나 호명되었다. 이 콩쿠르는 역대 스타 무용수들을 배출해낸 발레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데, 단 11명만이 최종 수상자로 선발되어 세계적으로 저명한 발레 학교와 컴퍼니의 스칼라십을 받는다(올해 지원자는 429명으로 여자 335명, 남자 94명). 그러나 이런 소식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한국 발레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현재 세계 정상급 발레단에는 많은 한국인 무용수가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3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Paris Opera Ballet)의 박세은, 발레 강국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Mariinsky Ballet)의 김기민이 있으며, 이들은 각 발레단의 간판 스타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발레의 중심에는 국립발레단이 있다. 지난해 창단 60주년을 맞이한 국립발레단은 현재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라는 수식어로 한국 발레의 역사를 써 내려간 강수진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단원을 대상으로 기획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를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에서 안무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솔리스트 송정빈은 대표적인 고전발레 작품인 <해적>(2020)과 <돈키호테>(2023)를 새롭



게 재안무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국립발레단은 <해적>으로 유럽 투어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과 한국-독일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무대를 국립발레단의 자체적인 레퍼토리로 꾸몄다는 사실은 K-발레를 외치기에 충분하다.

민간 발레단의 활약도 상당하다.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와이즈발레단 등 여러 발레단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한국 발레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매년 6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발레 축제’를 주목해보자.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발레의 대중화를 목표로 신진 안무가와 민간 발레단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야외공연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해 그야말로 축제의 장을 만든다.

**스페인의 정열을 담아낸 발레,
<돈키호테>**

오는 9월에는 국립발레단이 따끈따끈한 신작인 <돈키호테>로 부산을 찾는다. 이 작품은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1869년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가 루트비히 민쿠스의 음악을 사용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초연하였다. 초연 후 전 세계로 퍼졌으며, 오늘날까지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으로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발레 <돈키호테>의 매력 포인트라면, 단연 정열적인 ‘스페니쉬 스타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눈부신 태양 아래 활기찬 바르셀로나 광장, 부채와 캐스터네츠 등 스페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품의 사용, 또 무용수들이 손목을 꺾어 허리춤에 올리거나 박수를 치는 등 스페인의 움직임에 적용한 독특한 발레 동작이 한데 어우러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립발레단 photo by 손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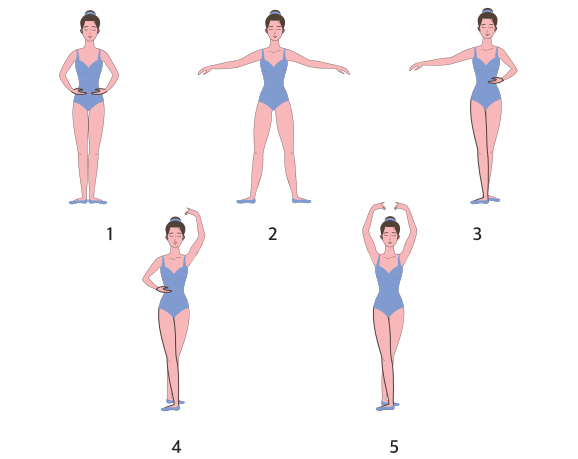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가 특별함을 더하는 데는 서사의 중심을 주인공인 ‘돈키호테’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발레 <돈키호테>의 원작에서 주인공은 ‘바질’과 ‘키트리’라는 젊은 연인이다. 부모의 반대를 거짓 자살 소동으로 이겨내는 연인의 유쾌한 사랑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라 할 수 있다. 발레의 특성상 젊은 연인의 화려한 춤이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늙은 돈키호테는 조력자의 역할로 머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는 지금껏 조연이었던 돈키호테에 무게감을 더했다. 1막의 키트리 솔로, 2막의 바질-키트리의 그랑 파드되(Grand pas de deux 이인무) 등 하이라이트는 그대로 살리되, 젊은 돈키호테의 춤을 새로이 삽입해 극의 개연성을 더한 것. 정의를 위해 치질 줄 모르는 도전을 하는 돈키호테,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명예와 사랑, 새롭게 탄생한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를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 **70**

발레 기본 포지션

발레를 사랑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자신의 무용 교사였던 피에르 보상에 게 발레의 기본자세와 규칙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때 만든 5가지의 발과 팔 포지션 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어를 알면 발레 용어를 이해하기 쉽다. 예컨대 발레의 기본 동작인 ‘쁠리에’의 경우, ‘접다’와 ‘구부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plier’에서 파생하여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지칭한다. 발뒤꿈치를 땅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을 구부리면 ‘드미(demi 중간)쁠리에’, 발뒤꿈치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무릎을 깊이 구부리면 ‘그랑(grand 큰)쁠리에’가 된다(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린 2번 포지션의 경우, 그랑쁠리에에서도 뒤꿈치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발레의 5가지 발과 팔의 포지션



발레 마임(Ballet Mime)

클래식 발레 공연에서 줄거리는 오로지 무용수들의 몸짓으로만 전달된다. 이것이 발레의 고유 영역이자 매력이지만, 이 때문에 발레의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때 알아두면 좋을, 감상 팁이 발레 마임(Ballet Mime)이다. 발레 마임은 특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정형화된 동작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결혼, 죽음, 아름답다, 사랑을 맹세한다’ 등의 메시지가 마임으로 표현된다.

발레 마임 동작



이미지 출처 : BALLET MIME GUIDE-The Poses Of Ballet Mime

알기 쉬운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및 제도(1)

이번 호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동법 시행령은'시행령')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당사의 경우, 중소기업 등과 제조위탁계약 체결이 많고 계약서 및 법률 검토 의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운영 세부기준을 규정한 고시가 개정되어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개정 내용 중 ▲기술유평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기존 10억 원에서 개정 20억 원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 체결 및 조정 실적에 따른 하도급 벌점 경감(최대 3.5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 내용(법 제12조의3)과 납품대금연동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기술유평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평한(법 제12조의3 제4항 위반) 기업에 대해 법 위반 금액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2). 이는 기술유평으로 인한 침해 기술의 내용과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내용이다.

관련 법령

기술자료요구 및 유평 금지(법 제12조의3)

위 개정 시행령 관련 기술자료 유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제1항)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제4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 받는 경우,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제2항)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제3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기술자료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공정위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등
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고,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대금 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 경감하도록 개정되었다(시행령 별표3 제3호가목 9) 및 10), 아래 표 참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인정)

경감 사유		경감 벌점
하도급계약 건수 중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	50% 이상	1점
	10% 이상 50% 미만	0.5점
하도급대금 증액 비율	10% 이상	1.5점
	5% 이상 10% 미만	1점
	1% 이상 5% 미만	0.5점

관련 제도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법상 연동계약과 유사하나, 특정 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하도급법과 달리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대해 적용된다.

•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일부 예외***).

* 주요 원재료 : 해당 거래에 사용되며,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위·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의하여 정한 비율

*** 주요 원재료가 없거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

•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의무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거래상지위 남용 또는 탈법행위 금지(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행위 금지(위반시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

현지호 부회장, ICAPP IBC 공동의장으로서 제1차 ICAPP IBC 협의회 세션을 진행하다

기후변화-탄소중립 해결을 위해 아시아 주요 정당인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부산에 총집결했다.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1차 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 IBC(기업협의체) 총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ICAPP IBC는 최초로 정당과 비즈니스 리더가 모두 모이는 회의로 24개국 28개 정당과 12개국 42개 기업 등 총 113명이 참석하는 대형 외교행사이다.

ICAPP은 아시아 역내 정당 간 정치적 이념과 배경을 초월하여 교류와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2000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다. 2023년 현재 역내 52개국 360여 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발전했다. IBC는 ICAPP의 기업협의체 분과로 처음 발족되었으며 아시아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정당의 역할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의 잠재적인 비즈니스 및 상업적 협력을 ICAPP 상임위원회 회원국 주요 정당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 ICAPP과 주요 정당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화승 현지호 부회장은 제1차 ICAPP IBC에서 초대 공동의장을 맡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세계적 대전환: 기업 발전을 위한 정당의 역할'과 '아시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탄소중립화와 기후변화대응'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세션 2의 진행을 맡은 현지호 부회장은 문재인 H2KOREA 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외교부, 부산발전연구원, 현대자동차와 SK E&S의 발표 등 세션을 진행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아시아의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견인했다. 부산성명서 낭독과 폐회사도 맡아 공동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화승코퍼레이션, 자회사 화승소재 흡수합병 고부가가치 소재로 비자동차 부문 경쟁력 제고

화승코퍼레이션이 화승소재를 흡수 합병한다. 이를 통해 화승코퍼레이션은 친환경 및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비자동차 부문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산업 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으로서 발돋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화승소재는 고무 및 탄성 소재 산업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40년 이상 축적된 고무 소재 기술력으로 CMB(Carbon Master Batch)와 TPE(ThermoPlastic Elastomer,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 방식으로, 7월 1일 합병 기일로 완료된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및 신소재 기술 위주로 체질을 개선, 중장기 성장 원동력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용 고무 제품 사업에 필요한 재료 배합기술과 생산공장을 직접 확보, 관리함으로써 경영 효율화 및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케미칼 해외 직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 ON

화승코퍼레이션과 화승케미칼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해외 직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화승코퍼레이션은 5월 화승인도안드라프라데시 법인 직원들이 1주간일 양산 화승R&A에서 기술 연수를 진행했고 수료식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한 차례 진행했던 화승코퍼레이션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각국 법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화승케미칼은 4월 베트남 법인 직원들의 서울, 아산, 부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부산 사옥 투어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카루미×서울패션위크 디자이너와의 아름다운 밋업(MEET-UP)

지난 5월에 열린 2023 F/W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밋업(Meet-Up)'에 화승케미칼이 함께했다. 기업과 디자이너 간 개방형 협력을 위해 열린 밋업 행사는 7개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6개 기업(블루샵, 화승케미칼, 숲 by 한진, 아리에블랙, 정식품, 대선주조)과의 협업을 모색했다. 화승케미칼의 브랜드 밋업을 제안한 아이스가든 정소희 대표는 카케어 브랜드 카루미의 MZ 타겟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안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마케팅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만큼 짜임새 있는 제안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성제, 윤진석, 심승보 작가의 예술 작품으로 물든 사옥

화승코퍼레이션의 예술 장애 작가로 입사하게 된 황성제, 윤진석, 심승보 작가의 작품들이 부산 연산동 사옥 2층 복도를 아름답게 물들었다. 각 2점씩 총 6점이 전시된 공간은 세 작가들의 전용 공간으로, 연중 주기적으로 작품을 변경해 전시할 예정이다. 로봇 작가 황성제, 시계 작가 윤진석, 자연생태 작가 심승보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물씬한 작품들로 화승 임직원들뿐 아니라 내방객들에게 예술로 힐링하는 시그니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화승R&A,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다

화승R&A가 종이컵을 없애고 전 직원에게 텀블러를 지급했다. ESG를 위한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매일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 또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모니터 보고 장려를 통해 자원 절약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화승R&A는 거창한 ESG보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전 임직원들의 공감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화승,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현수막 게시

지난 3월, 2030년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World EXPO 2030 BUSAN' 현수막이 화승 본사가 있는 부산 연산동 장천빌딩에 걸렸다. 화승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화승가족과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빌딩 전면에 게시했다. 최종 개최지 선정은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및 12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미스코리아 부산대회 수상자들, 화승 본사 방문

지난 5월 12일 미스코리아 부산대회에 출전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미의 사절단이 부산 연산동 화승 본사를 방문했다. 2023 미스코리아 부산 선발대회에서 당당히 입상한 7인의 미녀들이 협찬사인 화승에 입성한 것. 이 자리에는 화승을 대표하는 미스부산 선(善) 김수현 양도 함께했다. 뛰어난 미모와 지성의 미스코리아들은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특히 2030월드엑스포 부산 개최를 위해 열심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코라이징 F&B, 새로운 시장에 발을 딛다

여덟끼니 자회사 코라이징 F&B가 화제의 중심이다. 국내 최초 빙장 숙성육을 개발하여 햄, 소시지, 생햄 등 전 세계 유명 델리 가공품을 자체 생산·공급하고 있는 코라이징은 지난 4월에는 '고기' 키워드 No.1 정육왕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델리 브랜드인 WMM가 소개되면서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정육왕을 통해 공개된 WMM은 'World Meat Makers(세계의 모든 고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약자로 델리 전문 브랜드이다. WMM은 7월 1일 공식 네이버 스토어 오픈과 함께 정식으로 온라인 판매 및 소비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는 (주)지오비에이엔 전국 매장에 원물 유통을 시작한다. (주)지오비에이엔은 고반식당, 고반가든, 김치옥 등 전국 약 11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돼지구이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더불어 한우 맛집으로 유명한 '우미학'의 온라인 상품인 양념육 ODM 업체로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생산을 목표로 설비 라인 구축 중에 있다. 코라이징은 앞으로도 ODM/OEM은 물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정정합니다

지난 호 <핫플인사이드>에 소개되었던 피아크(PARK) 내용 중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존(Pet Zone)도 조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정정합니다. 현재 피아크는 '노 펫존(No Pet Zone)'으로 운영 중입니다. 업무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고, 독자분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승 70

화승 70주년기념 · 부산시민회관 개관50주년

돈키호테

Don Quixote

2023. 9. 16 (SAT) 17:00 / 9. 17 (SUN) 1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1번)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화승 70

출연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photo by 손지영

70년,
정신을 바로 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두 발로 달려온 시간이었다.

치우침 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할
화승은, 중심 있는 기업이다.